

## 研究發表

# 李退溪의 異端批判을 通해 본 理氣說

前慶北大教授 劉 明 鍾

<目 次>	
I. 退溪先生の 批判精神	2. 羅整菴과 李一齋의 理氣說 一說 批判
II. 主氣學 批判	III. 退溪理氣說의 本領
1. 徐花潭과 南東岡의 氣一論 批判	IV. 結 論

### I. 退溪先生の 批判精神

先生の 異端·異學에 對한 破邪는 곧 程·朱 正學의 顯正에 그 目的이 있었다.

文峯 鄭惟一이 말하듯 先生の 學問은 한결같이 程朱를 基準 삼았으며 敬義를 夾持하고 知行이 並進하여 表裏가 如一하고 本末이 並舉되어 大原을 洞見하고 大本을 植立하였다. 만일 그 至極한 境地로 말하면 吾東方의 唯一한 存在라 할 것이며, 「朱子學은 大中至正하여 一偏에 墮落하는 病蔽가 없다」(心經後論)고 스스로 말하듯 大中至正한 朱子學의 立場에서 모든 異端·異學을 批判하였다.

그리므로 禪佛과 老莊의 寂滅虛無性 및 管商·詞章의 功利俗學을 排斥한 것이 곧 程·朱 正學의 顯正을 위한 것이며 陸象山·陳白沙·王陽明 등의 禪學性과 羅整菴의 主氣學 및 國內의 崔孤雲·徐花潭·李一齋·盧蘇齋 등의 異學性을 批判한 것이다.

### II. 主氣學 批判

#### 1. 徐花潭과 南東岡의 氣一論 批判

徐花潭의 一氣長存說과 南東岡(彥經)의 陽明學의 主氣說에 대하여

그 不可함을 극히 주장하였다.

「花潭公所見 於氣數 一邊路熟 其爲說未免認理爲氣 亦或有指氣爲理者 故今 諸公亦或狃於其說 必欲以爲互古今常存不滅之物 不知不覺之頃 已隘於釋氏 之見 諸公固爲非矣(退溪集, 答南時甫)」

花潭의 互古今常存不滅한 氣란 곧 理를 氣라 생각한 過誤임을 지적하 였다.

「凡人死之鬼 其初不至遽亡其亡有漸···火既滅 爐中猶有中薰熱 久而方盡。 夏月日既落 餘火猶在 至極陰盛而方歇 皆一理也但。無久而恒存 亦無將已屈 之氣爲方伸之氣也。(同 上)」

죽음에 비유하고 自然現象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氣는 恒存하는 것 이 아니고 畢竟 없어지는 것이다. 단지 屈伸할 때 屈氣는 伸氣가 아 니다. 따라서 一氣가 不滅일 수 없는 것이다. 理란 本來 有無가 없는 내 有無가 있는 것 같이 말하고 氣란 至伸聚形하는 有와 反歸·消滅 하는 無가 있는 것이다.

「但以徐所謂「有象散而無有無者 爲甚精」 又自云「其氣却散而與天地之氣 混合無間。」 比數處爲可疑。蓋理本無有無 而猶有以有無者 若氣則至而伸 聚 而形爲有 反而歸 散而滅爲無。安得謂無有無耶。氣之散也 自然消盡而底滅 不行必與天地之氣混合無間 而後就泯也。(退溪全書 卷二十五, 答鄭子中 講 11)」

退溪는 根本의 理는 永虛한 것이며 氣는 有限한 것이라 생각하 였으므로 張橫渠·徐花潭 및 李栗谷의 「陰陽無始無終(栗谷集, 答朴和 叔)」說과 立場을 달리 한다.

「氣有生死 理無生死之說 得之。以日光照物比之亦善 然日光照有時而無者 以有形故也。至於理則無聲無臭無方體無窮盡 何時而無耶(退溪全書, 答鄭子 中別紙)」

氣의 有限性과 理의 無限性을 철저히 究明하였으며 또 「理無限量 惟氣有限量 有形故也(退溪全書 李成亨 心經質疑)라 하고 거듭 強調하

있다. 이러한 생각은 朱子가 廖德明에게 답한 글에서 根據를 볼 수 있다.

南彥徑의 「虛靜微妙한 것은 氣의 湛寂한 것이요 先天의 體이며, 生動充滿한 것은 氣의 流行이며 後天의 用이다.」(退溪集 靜齋記)한 氣一元說 또한 陳白沙·傳習錄에 中毒되었다고 批判하였다. 先天의 氣體와 後天의 氣用을 반대한 것이다.

## 2. 羅整菴과 李一齋의 理氣渾一說 批判

朱子와 退溪는 經驗的 事物이란 理氣大相離 不相雜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理없는 氣없고 氣없는 理없다」고 하지만, 始原에 있어서는 理先氣後이며 理의 一次性 혹은 優位性을 認定하여 理의 超越的 實在·普遍的 實在性을 強調하였다.

그러나 明의 羅整菴은 理의 超越性을 否認하고 理氣는 始原 혹은 流行過程에서도 一體兩面的인 것, 渾一的인 것으로 보는 同時에 氣의 超越的 實體化 또한 拒否한다.

一齋 李恒(一四九九~一五七六)은 羅整菴과 같은 立場을 取하면서 理氣一體, 性氣一體說을 주장하고 心先動說을 말함으로서 退溪의 批判을 받게 되었다.

「易曰太極生兩儀。蓋兩儀未生之前 兩儀存乎何處。兩儀已生之後 太極之理亦存乎何處 從這裏面深思明辯 則庶見理氣之渾然一物耳。余以爲太極未生 兩儀之翳 兩儀固存乎太極之度內 而太極已生兩儀之後太極之理 亦存乎兩儀之中矣。然則兩儀未生已生 元不離乎太極也 若相離則無物矣。(一齋集, 與奇明彥)」

一齋는 太極과 氣는 未生·已生을 通하여 永遠히 不相離하는 一物이라 보았다.

退溪의 생각으로 볼 때 永遠한 理와 有限한 氣가 어떻게 未生·已生을 通하여 一物이라 하겠는가, 따라서 다음과 같이 批判한다.

「太極陰陽道器之別 聖賢發明不啻如衆曜之麗乎天。斯人(一齋)也 其初既不能細心耐煩研精微密只。就國說上略見一箇影象 掇取數句緒論 處執以爲定見

謂天下道理不過如此已。非善爲學者(退溪全書, 答奇明彥 別紙)」

이 사람은 절 研究도 해보지 않고 太極圖說의 한 그림자만 보고 갑자기 定見으로 삼으니 學問 잘하는 者가 아니다. 이러한 過誤는 理字에 대한 眞知妙解의 不足이라 指摘한다.

「所謂理字難知者 非略知之爲難 眞知妙解到十分處爲難耳。若能窮究衆理到得十分透徹洞見。得此箇物事至虛而至實 至無而至有 動而無動 靜而無靜 潔潔淨淨地 一毫添不得 一毫減不得 能爲陰陽五行萬物萬事之本 而不囿於陰陽五行萬物萬事之中。安有雜氣而認爲一體看作一物耶(退溪全書 答奇明彥 別紙)」

이것은 李一齋의 理氣一體一物說과 羅整菴, 盧蘇齋의 理氣一物說을 동시에 拒否한 것이다. 氣(陰陽) 質(五行)事物의 本原的 者인 理란 潔潔淨淨한 것이며 氣와 相雜·待對하는 것이 아니다.

### Ⅲ. 退溪理氣說의 本領

徐花潭 혹은 李一齋등의 理氣說에 대한 批判을 통하여 볼 때 退溪는 原始的 理란 超越的 實在임을 分明히 하였다.

단지 經驗的 現實에 限하여 「理없는 氣없고 氣없는 理가 없다」는 原則 아래 理氣不相離와 不相雜, 無先後라 하였으나, 「理無對」「理無限量」「理無情意無造作」이라 하였음으로 그것은 「統體一太極」의 理이다. 따라서 退溪의 理는 二重性을 지닌다. 實在 卽法則 內在卽超越, 特殊 卽普遍, 論理的 立場卽經驗的 立場, 혹은 理一分殊(一卽多)라는 二重性이 있다. 그러나 法則·內在·特殊·經驗的 立場·分殊는 條理이며 各具一太極이니 理氣無先後라 하겠다. 따라서 羅整菴 李一齋는 이러한 立場만을 取하였다. 退溪는 「所以」「條理」의 理만을 보지 않고 實在·超越·普遍·論理的 立場인 理一도 함께 洞見하였음으로 「無情意云云 本然之體 能發能生 至妙之用也」라 하고, 「理自有用故自然而生陽生陰也(退溪全書, 答李公浩)」라 하였고,

「理之爲體 不囿於氣 不局於物 故不以在物者之小偏而虧其渾倫者之大全也

同, 答李宏仲)」

이라 했다. 理體는 氣 또는 事物에 局限되지 않는 超越者이다. 그 理體의 流行이 곧 다름아닌 理의 用이다.

그러나 事物에는 事物의 體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理의 體用 일수는 없다.

「凡謂體用者 謂是物有是體則即其體而有其用耳如筆有毛有竹尖頭套甲者體也 待人而甲脫柄連飲墨行紙者用也. 以是爲筆之體用可也. 若以彼爲體而以人之用筆爲筆之用則不可(退溪全書, 答李平叔)」

筆이라는 事物에 方體와 作用이 있다 함은 옳으나 筆이라는 事物을 體로 삼고 사람의 用筆을 筆의 用이라 함은 不可하다. 事物의 方體와 作用은 理의 體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若以彼(筆)爲體而以人之用筆爲筆之用則不可」라 하였던 것이다.

#### Ⅳ. 結 論

① 退溪는 徐花潭·李一齋와 같이 氣의 永遠性을 認定하지 않고 오직 理만을 永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始原은 唯一한 理의 世界이다.

② 退溪는 「所以」·「條理」의 理와 「理一」·「統體一太極」의 理를 同時에 認定하여 宇宙의 眞相은 潔潔淨淨한 理의 世界라 본다.

③ 理의 體用을 認定함으로써 理의 二重性을 承認하는 理哲學이 確立되었다.

따라서 理의 回復을 居敬의 最後 目標로 삼았고 氣質의 變化가 可能하다는 論理的 根據를 提示하였다.

理氣가 共在하는 經驗界라 할지라도 「所以」「條理」의 理 또한 念氣를 制約할 能力이 있으므로 主理功夫에 努力해야 하고, 그 方法은 곧 居敬이요 主一無適이다. 本來的인 理 혹은 木然之性을 回復하여 歡樂의 現代文明에 挑戰 또는 克服함을 現代는 바라고 있다. 感覺的·享樂的 現代를 克服하는 過程에서 退溪의 理哲學과 居敬功夫는 偉대한 方向을 提示할 것이다. 退溪의 理는 決코 空理 空談이 아니다.

韓國의 哲學 第六號

「飲食男女에 至理所寓而大欲存焉이라 君子之勝人欲而復天理由此요 小人之滅天理而窮人欲亦由此라 故로, 治心修身이 以是爲切要也(同, 答李宏仲)」

라 한 것이 理가 空理 空談이 아니라는 것이다. ( 끝 )